

한국의 사교육비 격차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패널조사의 다극화 지수와 지니 계수를 이용한 분석

양 정 호*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다극화 지수와 지니 계수를 이용하여 각 가구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소비한 사교육비 지출 격차의 추세에 대해 중단분석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은 매년도마다 전국의 약 1,500개 가구이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2001년도 이후 사교육비 지출은 계속해서 증가해 왔으며 5분위로 나눈 각 집단간에도 사교육비 지출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극화 지수와 지니 계수를 이용한 분석결과,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점점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에 기초해서 사교육비에 대한 적절한 교육정책 수립과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 서론

지금까지 나타난 다양한 교육현안 중에서 사교육 문제만큼이나 모든 교육관련 이해당사자들로부터 관심을 끈 경우는 없었던 것 같다. 아마도 이제는 사교육이 공교육만큼이나 상당히 보편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이 사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서적들이 출간되었으며 서울 강남지역을 대상으로 한 서적들(김상현, 2004; 김은실, 2004)이 상당한 기간동안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였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실시된 한 조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학생의 70.3%와 학부모의 59.6%가 학교교육보다는 오히려 학원과의 학교성적을 향상시키는 데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김양분-김미숙, 2002). 특히 1971년도에 실시된 중학교 무시험입학과 1974년의 고교평준화 정책 등의 사교육관련 억제 정책이후에 2000년에 들어서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교육이 전면 허용되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사교육 금지 조치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사교육이 일시에 대도시를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성행하게 되었다. 사교육이 사회의 주요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교육 그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사교육이 평준화, 대학입시, 선행학습, 공교육 불신 등의 다른 교육문제들과 맞물려서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사교육시장의 팽창으로 인한 사교육비의 급증으로 인해 자녀를 둔 각 가정의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오옥환, 2000; 성기선, 2002; 양정호, 2003; 한준상, 2005). 더욱 큰 문제는 요즘 많이 이슈화 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 문제가 사교육에도 적용되고 있다

* 성균관대학교 교수

는 점이다(우천식, 이경영, 2005). 즉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계층이 상류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의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하류층과 비교할 때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영, 2004).

최근 나타나고 있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대학입시를 목적으로 한 단순한 암기위주의 지식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 습득이 중요시 되고 있다. 따라서 지식기반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학교교육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사교육이 정상적인 학교교육 운용을 어렵게 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과반수 이상이 개인과외나 학원과 외 등의 사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교육문제는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특히 우리나라처럼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높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판단에 근거한 사교육 선택보다는 주변의 다른 학부모의 자녀가 받고 있는 사교육 종류가 무엇이며 몇 개나 받고 있는가에 대한 단순비교를 통해 자신의 자녀에게도 비슷한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사교육을 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사교육열풍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 강남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된 거주이유가 주변의 우수한 교육환경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포동, 도곡동, 대치동 지역 거주자들의 각각 75.0%, 65.7%, 57.4%가 교육환경을 위해 타지역에서 이주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김현아, 2002). 또한 사교육에 지출된 비용도 꾸준히 증가해서 최근에는 무려 GDP 대비 약 2.3%까지 크게 늘어나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사교육산업으로까지 성장하였다(조선일보, 2003.10.23; 양정호, 2004a).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다양한 사교육 및 사교육비 대처방안을 정부, 교육기관, 교육연구자들이 계속해서 제안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현 참여정부의 역점사업의 일환으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에서 중요한 방안이 EBS를 통한 수능강의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이런 여러 방안들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효과가 있는 경우에도 장기적인 효과보다는 대부분 발표 후의 일시적인 효과만이 나타나곤 하였다. 이렇게 효과가 미미한 주된 이유는 대부분의 사교육관련 정책들은 사교육현상에 대한 실태나 현황 파악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 기초하고 있지 사교육과 관련해서 보다 심층적으로 수행된 연구에 근거하는 경우가 적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는 사교육 및 사교육비 경감방안 마련 및 발표 그리고 각 방안 시행 후 수집한 실적위주의 점검에만 급급했지 정책평가측면에서 철저한 사후평가를 통해 경감방안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안 마련을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현재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지난 1998년부터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동일가구를 추적한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전국의 도시지역 거주 5,000가구에 대한 사교육 및 사교육비관련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각 조사연도별 가구별 중단적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중단연구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사교육관련 중단연구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인 규모로 수집된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각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에 대한 실증적인 중단분석을 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사교육비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사교육비 지출 현황 및 변화추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교육비 문제를 좀더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지난 20년간 나타나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사교육참여 및 사교육비 변화추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980년보다 1990년도 후반기로 갈수록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사교육참여 정도는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표 1>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1980년도에는 전국 중학교 학생의 20.3%가 사교육을 받은 반면에 1990년에는 31.0%까지 증가하였고 1999와 2000년도에는 50%이상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최근 2003년도 조사에서는 무려 75.3%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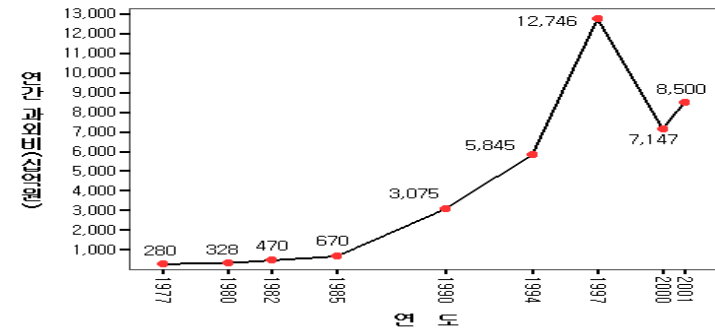
학교급별	1980	1990	1997		1999		2000	2001	2003
			한국교육 재정경제 학회	한국교육 개발원	교육인적 자원부	한국교육 개발원	교육인적 자원부	한국교육 개발원	한국교육 개발원
초등학교	12.9	-	81.2	72.9	70.1	73.5	70.7	70.5	83.1
중학교	20.3	31.0	55.3	56.0	62.8	50.7	59.5	63.9	75.3
고등학교	26.2	12.6	27.2	32.0	47.2	39.8	35.6	48.3	56.4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03.11.27). 사교육비 경감방안 보도자료.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사교육 의존도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사교육관련 교육정책이 과거의 엄격한 금지조치에서 점차 완화된 것이 주된 이유이다. 예를 들면 1980년 7월 30일 시행된 과외전면 금지 및 보충수업 폐지 이후, 1991년 7월 22일의 초중고생 학기중 학원수강 허용, 1996년 3월 1일의 대학원생 과외 허용, 1998년 8월 12일의 보충수업 자율학습 단계적 폐지 발표, 그리고 2000년 4월 27일의 과외금지 위헌 결정으로 이어진 사교육관련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사교육이 크게 확산되었다.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증가로 인해 사교육비도 거의 매년 증가하여 2003년도 사교육비는 총 13조 6천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3%와 연간 총 교육예산의 55%에 이르고 있다(조선일보, 2003.10.23; 한국교육개발원, 2003.11.19). 2003년도 불변가로 환산했을 때 1998년도에 비해서는 8.6%, 2001년도에 비해서는 무려 23.6%가 증가하였다. 학교급별 총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총 사교육비 규모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초등학생 총 사교육비는 7조 2천억 원, 중학생 총사교육비는 4조 1천억 원, 고등학생 총 사교육비는 2조 2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연간 과외 사교육비 추세(1977~200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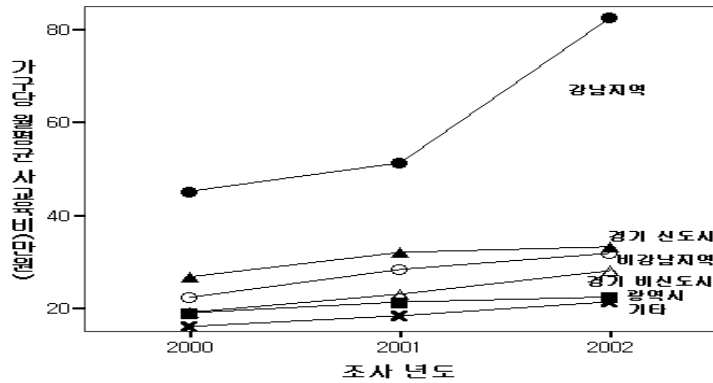
자료: 김영철 외(2001). 사교육비 해소방안: 과외과외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19(3) 조선일보(2003.10.23). “사교육비 매년 조단위로 는다.” A1면.

좀더 구체적으로 총 사교육비 중 과외비에 대한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이, 1977년에 2천800억원에서 1990년에는 3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1997년에는 10조원을 넘었다가 2000년에는 조금 감소한 후 2001년에는 다시 8조 5천억원으로 증가하였다. GNP 대비 과외비 비율로 살펴보면 1977년 0.36%이던 것이 2001년도에는 무려 1.0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2003.11.19)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각 학교급별 및 지역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20만 9천원, 중학생 27만 6천원, 일반계 고등학생 29만 8천원, 실업계 고등학생 18만원이 매달 사교육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대입 준비를 주로하게 되는 일반계 고등학생들이 과외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었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강남지역 학생들의 연평균 사교육비가 478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도권지역 학생들은 358만원이며 다음으로 많이 지출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203만원으로 가장 적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강남지역 학생들이 읍면지역 학생과 비교해서 거의 2.35배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간 편차가 상당히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동일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한 중단연구(양정호, 2005)에서도 지역간 사교육비 차이가 명확히 나타났다. 주요 관심지역별 실질 사교육비 증가 정도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강남지역(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위치한 가구의 실질사교육비 지출이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매년마다 증가비율도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연도별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 추세



자료 : 한국노동패널 3-5차 조사.

2. 사교육비 지출 격차에 선행연구

지금까지 수행된 사교육비 연구들 대부분은 앞에서 지적된 것처럼 실태조사 및 단순 기술에 초점을 맞추었거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시계열적 추정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김홍주·한유경·김현철, 1999). 따라서 학생들이 사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사교육비의 격차에 대해 체계적으로 수행된 종단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존연구와 다른 좀더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사교육비 지출 격차를 분석한 연구도 최근에야 몇 편 수행된 정도이다(양정호, 2005; 이성림, 2002, 2005; 이영, 2004).

최근까지 수행된 사교육비 지출 격차관련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우선 먼저 가계의 수입이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이성림, 2002, 2005; 이승진, 2002; 이정환, 2002; 이주호·김선웅, 2002). 특히 50%이상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각 가계에서 지출해야 할 총 사교육비 비중이 점차 증가하기 때문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교육비 지출은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된다. 즉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을 둔 모든 가구에서 금전적 투자가 가능하고 여유가 있는 상위계층과 비교해서 하위계층에서는 사교육비 지출에서 상당한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2000년에 조사된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초등학생의 경우 상위 30%가 전체 사교육비의 59%를 차지하였고,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상위 30%가 전체 사교육비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집단간의 격차가 명확히 나타났다(이성림, 2002).

또한 1998년부터 2002까지의 사교육비를 분석한 결과도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이영, 2004). 소득대비 고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이 저소득층과 비교할

때, 총 사교육비 금액은 약 8배정도이고 총소비지출 대비 1.6배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금액뿐만 아니라 소비지출 비중에서 고소득층이 더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소득계층간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점차 심해질 가능성이 크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교육비 양극화 현상의 고착으로 인해서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크게 될 것이다.

사교육비 지출 격차를 좀더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비교가 가능한 지수를 사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해서 이용 가능한 방법은 경제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지니 계수를 이용하는 것이다. 사교육비 지출의 불평등 정도를 지니 계수를 이용해 분석한 이성림(2002)의 연구에 따르면 사교육비 지출 불평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지니 계수는 초등학생 가구에서는 0.4381, 중고등학생 가구에서는 0.6468로 나타나 집단별로 상당히 높은 사교육비 지출의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각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사교육비에 대한 연구는 사교육비 격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최근에 주로 학계에서 논의되는 것은 사회에서 점차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각 집단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에 대한 차이만을 대체로 살펴보았지 실제로 사교육비 지출의 격차가 집단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거의 없었다. 물론 지니 계수를 이용한 사교육비 지출 불평등 정도의 파악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양극화와 같은 계층간 집단화 현상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단자료인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사교육비 지출 격차에 대한 장기적인 추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문제

본 연구는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각 가구가 자녀의 사교육을 위해 지출하고 있는 사교육비 지출 격차에 대한 종단연구이다. 즉 종단자료인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해서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검토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실태 및 추이는 어떠한가?
- 사교육비 지출 추이는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같은 각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가?
-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어떤 형태로 진행되었는가? 지니 계수와 다극화 지수로 계산된 사교육비 지출 격차의 추세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III. 연구방법

1. 자료 및 표집

본 연구에서 사교육비 지출 격차의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1998년도부터 최근 2004년도까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가와 가구원을 조사한 종단적인 자료이다. 한국노동패널은 최초년도에 제주도를 제외한 도시지역의 5,000가구를 패널 표본 가구로 선정하여 매년 동 가구에 속한 가구원들의 경제활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 훈련, 노동시장 이동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남재량 외, 2005). 특히 사교육과 관련해서는 각 가구의 자녀당 월간 사교육비, 사교육종류, 사교육 횟수, 사교육 시간에 대한 자세한 사교육 활동에 대한 횡단 및 종단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전국 도시가구의 사교육 흐름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하지만 사교육관련 자료수집은 해당 연도에 따라서 약간씩 내용이나 형태에서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3차년도 자료(2000) 이후부터 사교육관련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였고, 2차년도 자료에는 사교육관련 자료가 수집되지 않았으며 1차년도 자료(1998)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에 대한 제한적인 사교육 자료만이 수집되었다. 또한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사교육비 지출 규모에 대한 조사는 4차년도 부터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사교육비 분석을 위해 사용된 자료선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구당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설문이 시작된 4차년도 이후 자료만을 이용하였다. 다음으로 재수생을 포함한 고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만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사교육비를 지출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각 년도마다 약 1,500가구내외의 가구자료이다.

2. 사교육비 변수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본 연구는 사교육비 지출의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 각 가구에서 지출한 월평균 사교육비를 이용하였다.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매년도마다 각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항목 중에서 “작년 한해 동안 _님 님의 생활비는 월평균 얼마나 되었습니까?”에서 학원 또는 과외비 등의 사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교육비 지출의 격차를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각 가구내 매월 평균 총 사교육비만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사교육비는 일반적으로 자녀수, 연령 그리고 사교육 형태에 따라서 지출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의 가구가 소비하고 있는 사교육비 지출 격차의 추세를 분석하는 것이다. 우선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는 매년 동일한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해 종단적으로 수집된 자료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사교육비 지출 격차 추세를 알아보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사교육비 지출 격차를 살펴보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교육비 지출정도를 몇 개의 집단별로 구분하는 방법이 이용된다. 예를 들어 사교육비 지출 순위를 파악한 후에 전체를 5개 또는 10개의 집단으로 구분하는 5분위 또는 10분위 방법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하위 분위와 상위분위간의 차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이런 방법은 경제학에서 소득분포의 파악을 위해 주로 이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비 지출정도 파악을 위해 5분위 방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사교육비 지출 격차 추세의 비교를 위해 소득분배 불평등의 측정에 주로 사용되는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와 다극화 지수(polarization index)를 이용하였다. 지니 계수는 전체 집단의 분포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즉 사교육비가 하위집단부터 상위집단의 구성 비율에 따라서 일정하게 지출될 때 지니 계수는 0이 되고 반대로 각 집단간에 사교육비 지출에 차이가 클수록 불평등도 심화되고 1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니 계수는 중산층의 감소 같이 특정집단의 변화와 같은 분포의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다(신동균, 2005; Duclos, Esteban, & Ray, 2003, 2004; Wolfen, 1994, 1997). 다극화의 극단적인 경우가 소득 또는 사교육비가 두 집단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양극화이다. 다극화 지수는 기본적으로 같은 집단내 구성원의 동질성(identification)과 이 집단이 다른 집단에 대해 느끼는 이질성(alienation)에 따라서 달라진다. 다극화 지수가 크면 클수록 집단간의 구분이 명확해져서 서로간의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게 되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갈등이 적을 가능성이 높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극화 지수는 Duclos, Esteban 그리고 Ray(2003, 2004)가 개발한 것으로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P_{\alpha}(f) = \int \int f(x)^{1+\alpha} f(y) |y-x| dy dx \quad (1)$$

식 (1)에서 x, y 는 각각 다른 집단에 속한 개인이고 α 는 동질성 함수의 중요도 또는 다극화 지수의 민감도(polarization sensitivity)로서 0.25부터 1까지의 범위를 가지는 상수이다. 위의 다극화 지수에서 동질성이 중요시 되면 α 값이 커지게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값이 작아지게 된다. 만약 α 값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0의 값을 가질 때는 지니 계수와 같게 된다. 최근 경제학 분야에서 이러한 다극화 지수에 대해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더 자세한 것은 신동균(2005)과 Duclos, Esteban 그리고 Ray(2003, 2004)에 기술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 추세에 대한 분석을 위해 지니 계수와 다극화 지수의 계산이 가능한 DAD 4.4 프로그램(Duclos, Araar, & Fortin, 2004)을 이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사교육비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사교육비 지출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사교육비 지출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 집단의 격차 파악을 위해 다양한 지수들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차례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사교육비 지출 분포의 추이

우선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전반적인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표 2>에서 각 연도별 사교육비 지출의 기술통계치를 제시하였다.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조사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대체로 사교육비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즉 2001에는 월평균 26.8만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였고 2002년에는 30.8만원으로 나타났으며 2003년에는 39.2만원으로 크게 증가하다가 2004년도에는 36.9만원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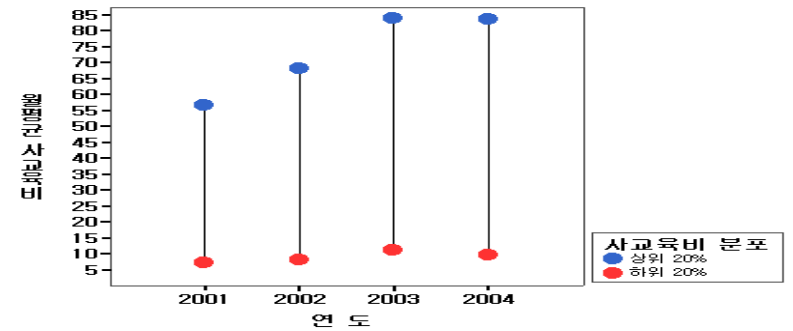
<표 2>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의 사교육비 지출의 기술통계치 및 5분위 분포

연도	가구수	평균	표준편차	5분위 분포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1(4차)	1367	26.7783	20.8157	7.4717	15.0410	21.7435	31.7280	56.8467
2002(5차)	1394	30.7862	29.0921	8.4879	17.6754	24.6902	33.7768	68.5000
2003(6차)	1477	39.1605	30.3942	11.3946	21.9965	31.9747	45.2579	84.2339
2004(7차)	1512	36.8618	30.2151	9.8237	19.8453	29.7380	43.9218	83.7603

또한 사교육비 지출정도에 따라 전체집단을 5개로 구분한 5분위 분포를 살펴보면, 각 분위별로 사교육비 지출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교육비 지출은 지출이 적은 1분위에서 지출이 많은 5분위로 갈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아지고 각 분위별 차이가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2004년도를 살펴보면, 1분위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9.8만원, 3분위는 29.7만원, 5분위는 83.8만원으로 사교육비 지출에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 이러한 각 분위별 사교육비 격차는 거의 매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양극화 현상을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해서 좀더 살펴보기위해 1분위와 5분위의 사교육비 지출을 비교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연도별 가구당 상위 20%와 하위 20% 사교육비 분포



2001년 이후 사교육비 지출 하위 20%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10만원 내외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에 상위 20%의 경우는 57만원에서 84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분위와 5분위의 사교육비 지출격차가 점차 심화되는 사교육비 지출 양극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두 집단간의 사교육비 격차는 2001년에 7.6배에서 계속 증가해서 2004년에는 8.6배로 늘어났다.

2. 사교육비 지출 격차 추이: 다극화 지수와 지니계수

앞의 사교육비 지출 분포에서 나타난 사교육비 지출 격차를 좀더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집단간 격차 또는 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다극화 지수와 지니 계수를 이용해서 사교육비 변화를 살펴보았다.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의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었다.

<표 3>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의 다극화 지수 및 지니 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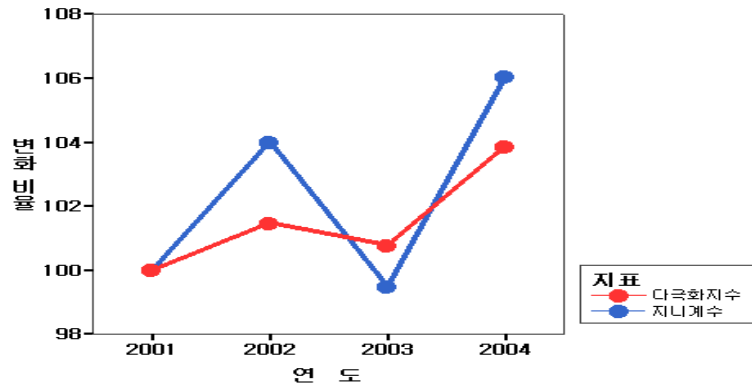
연도	다극화 지수($\alpha=0.5$)	지니 계수
2001(4차)	0.2292	0.3732
2002(5차)	0.2326	0.3882
2003(6차)	0.2310	0.3713
2004(7차)	0.2381	0.3958

위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2000년 이후 각 연도마다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분포에 대한 격차가 대체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극화 지수($\alpha=0.5$)뿐만 아니라 지니 계수도 점차 증가하였

다. 지니 계수의 경우에는 2001년도에 0.3732에서 2002년에는 0.3882로 증가하였고 이후 2003년에 0.3713으로 감소하다가 2004년도에 다시 0.3958로 증가해서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2003년도만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매우 심하게 진행되어 극단적인 경우 양극화 진행정도를 나타내는 다극화 지수도 2003년만을 제외하고 매년도마다 꾸준히 증가하였다. 따라서 사교육비 지출 분포가 각 집단별로 불균등하게 진행되어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교육비 지출 격차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다극화 지수와 지니 계수는 서로 다른 지수이기 때문에 두 지수간의 비교를 위해 2001년도를 100으로 해서 각 지수의 변화정도를 살펴보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연도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 변화 추이



앞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다극화 지수와 지니 계수 모두 2003년을 제외하고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체로 사교육비 지출의 격차는 2001년 이후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왔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2003년도의 경우 지니 계수의 감소가 다극화 지수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것은 지니 계수로 측정된 전반적인 사교육비 지출 불평등은 크게 감소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양극화와 같은 특정 계층의 사교육비 지출 집중도는 많이 감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하나의 지수만으로 전체 사교육비 격차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의 추세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수집한 종단자료인 한국노동패널조사를 다극화 지수와 지니 계수를 이용해서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1년도 이후 사교육비 지출은 대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4년도에만 사교육비가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교육비에 대한 각 가구의 부담이 점차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좀더 구체적으로 사교육비 지출 격차를 살펴보기 위해 5개의 집단으로 세분한 결과를 살펴보면, 사교육비 지출 하위집단과 상위집단간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교육비 지출 하위 1분위와 상위 1분위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약 8배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상위집단의 경우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를 상당히 많이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격차는 궁극적으로는 자녀의 학업성취나 대학진학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셋째,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2001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극화 지수와 지니 계수 모두 2003년도만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점점 증가해서 각 집단간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수가 약간 감소한 2003년도만을 볼 때, 지니 계수의 감소폭이 다극화 지수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지니 계수만으로는 실제로 나타나는 사교육비 지출 격차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이 시기에 지니 계수에 따른 불평등은 감소했는지 모르지만 사교육비 지출 분포의 집단화 경향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사교육비 지출 분포에는 변화가 있었는데 이것은 불평등의 약화라기보다는 극단적인 경우 양극화와 같은 현상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교육비의 지출 격차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집단간 또는 계층간에 따라서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정도가 더욱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계층에 따른 교육기회 획득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자연히 사회적 불평등이 점점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양정호·김경근, 2003; 전우홍·양정호, 2004). 최근에는 이러한 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의 문제가 보다 심화되어 소득 최상위 계층과 최하위 계층간의 양극화 현상으로까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동아일보, 2005.8.9). 특히 최근의 2003년도 서울대 신입생 특성조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전체 중에서 약 40%정도의 학생이 서울 출신이고 아버지 직업이 전문직 계층인 경우도 약 40%에 이르는 것에서도 이러한 계층간의 차별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2003).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교육 또는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교육정책적인 측면에서 학교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양정호, 2004a). 즉 학교교육의 비정상적인 운영이 마치 사교육에 기인한다는 관점에서 사교육의 약화가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각급학교의 약 과반수이상의 학생들이 다양한 형

태의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교육정책 수립시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지금까지 정부에서 제시한 다양한 사교육대책이 기대된 것만큼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교육부에서도 EBS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이 정책이 정부에서 홍보하는 것과 같이 단기간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서윤신문, 2004.11.19; 손경애, 2004). 시간이 지날수록 사교육은 나름대로 이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나갈 것이며 결국에는 과거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과 사교육과 관련된 교육정책 수립시에 기존의 두 기관간의 대립 또는 경쟁관계의 시각보다는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각자의 장점을 살리면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교육과 사교육의 기본적 특성과 차이를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대학입시와 관련해서 공교육기관인 학교는 기본적으로 내신과 수능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수능을 강조하면서도 전인 교육에 대한 이상을 사회적으로 요구받고 있어 형식적으로나마 학교 현장에 인성교육의 논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교육과정에 나타나야 한다. 계발 활동, 특별 활동, 학급회의, 생활 지도, 인성 지도 등이 이런 예에 해당된다. 여기에 사교육기관인 학원에 비해서 몇 십 배 규모의 조직으로 학교 체제가 움직이고 있고, 몇 단계의 상급 기관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간섭과 행정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러한 여건들은 학원과 학교의 경쟁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원과 학교의 기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원과 학교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원과 학교의 특성에 대한 구체적 연구, 예컨대 학원 강사와 교사들의 수업 준비 과정 및 수업 특성, 학원과 학교의 경영 방식 및 조직 운영, 학원장과 학교장의 리더십, 조직 운영 방식의 차이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윤종혁, 2003; 김성천·양정호, 2004).

또한 학교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수능과 학교 교육과정과의 일치, 교사들의 행정업무 감소와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 수준별 수업의 정착, 학부모에게 학교와 학생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등 크게 네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학교 교육과정과 괴리된 수능의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의 수능은 교과서 이외의 내용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서 고급 사고력과 다양한 독서 능력을 본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학교 교육의 한계를 드러내고 결과적으로 사교육 시장을 부추긴다는 단점도 있다. 둘째, 교사들의 행정업무 감소와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 교사들에게 부여되고 있는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을 상당한 정도로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 내에서 행정업무를 잘 처리하는 교사가 인정받기보다는 수업과 관련된 업무에서 유능한 교사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김대유, 2001; 이해영 외, 2001; 류방란·이해영, 2002; 서근원, 2003). 하지만 이러한 업무부담이 완화되기 이전이라도 교사들 스스로 위기를 인식하고, 다양한 방식의 자기 변화를 꾀해야 한다. 셋째, 학생들의 수준별 수업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김영화, 2003). 현재와 같이 다양한 능력을 지닌 학생들을 한 반의 교실에서 가르침으로 인해 교사들도 어느 학생의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학생과 교사 나아가서 공교육 전체로 볼 때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마다 특성에 따라서 교과별 수준별 수업이 탄

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수준별 수업 운영이 궁극적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각 학교 구성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알려야 할 것이다. 넷째, 학부모에게 학교 및 학생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에 대한 정보전달과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지속된다면 당연히 사교육에 학부모들은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 가지 예로 대부분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학교에서 보내주는 성적표에 학생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적을 수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사교육기관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세밀히 기술한 학생정보를 더 신뢰하게 되며 결국 이것은 사교육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공교육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걸쳐서 각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학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단순히 점수가 몇 점인가에 대한 기술보다는 무슨 과목의 어떤 영역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잘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사교육과 관련해서는 사교육의 너무 부정적인 면만 보기보다는 학교에서 수행되는 공교육과 더불어서 사교육이 학생들의 학업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모색할 필요가 있다(양정호, 2003). 최근 사교육과 관련되어 먼저 논의되는 것은 사교육이 지니고 있는 부정적인 면들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학교교육의 비정상적 운영의 주요요인이라거나 사교육비의 확대만을 유발한다거나 단순 반복학습과 선행학습만을 강조하는 점 등이다. 이렇게 기존의 사교육 대처방안처럼 단순히 사교육을 억제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양성화를 통해 필요시에는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때에 따라서는 사교육을 학교교육내로 흡수해서 사교육을 적극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교육기관의 한 형태로 사교육기관에 공교육의 일정부분을 맡기는 형태(예, 차터스쿨)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우수한 학원을 변형된 형태의 자립형 사립학교 또는 대안학교로 운영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일본처럼 일정기준이 되면 공교육기관의 한 형태로 정식으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정진환, 2004). 교사들간의 교류차원에서 볼 때, 현 입시제도에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한 사교육기관의 강사들을 초빙해서 공교육기관 교원들에게 노하우를 알려주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우수한 수업방식 및 사례의 발굴을 통해 학교교육과 사교육이 서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교육 및 사교육비와 관련해서 연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부와 교육연구기관이 사교육연구에 보다 개방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양정호, 2004b, 2005). 기존의 사교육연구물들을 보면 단순 조사는 대체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료수집후 교육연구자들의 연구를 위한 자료의 공유 및 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폐쇄적이었다. 따라서 기존 사교육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육관련 기관의 자료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보다는 오히려 교육과 관련이 적은 기관(한국소비자보호원, YMCA, 한국노동연구원, 대우경제연구소)들의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보편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이 공개한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는 사교육비 연구 활성화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풍부한 사교육관련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한 본 연구와 같은 연구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사교육의 실태, 요인, 추세에 대한 이해를 더욱더 촉진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사교육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 점을 교육부와 교육연구기관들은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늦었지만 올해부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일부의 자료라도 연구자들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2001년 이후의 가구당 평균 사교육비 지출의 추세에 대해서만 주로 연구를 하였지 다양한 사교육형태와 종류, 그리고 연령 및 자녀들의 학교급에 따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으로 이에 대해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이용가능한 모든 조사년도의 자료를 이용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의 강남지역이 사교육문제가 등장할 때 마다 주요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 각 구별 사교육비 차이에 대해서도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교육 연구의 핵심은 사교육이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학업성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가능하다면 다양한 중단자료를 이용해서 사교육 받는 것과 학업성취 또는 대학진학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주제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고형일·이두후(2002).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학교교육의 재구조화 방안」, 교육사회학연구, 12(1), 1-42.
- 교육인적자원부(2001). 『2000년도 사교육비(과외비)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교육부.
- 김기승(2003). 「OECD 국가간 교육투자의 효율성 비교」, LG주간경제(2003.10.15), 4-8.
- 김대유(2001). 『교육은 살아있다』, 서울: 말과창조사.
- 김상현(2004). 『대한민국 강남특별시: 부와 교육 1번지 강남의 모든 것』. 서울: 위즈덤하우스.
- 김성천·양정호(2004). 「수능 시험에 대한 학원과 학교 경쟁력 비교 분석: 고3 수험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31(3), 127-156.
- 김양분·김미숙(2002). 『입시학원의 교육실태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영철·양승실·김영화·이주호(2001). 「사교육비 해소 방안: 과열 과외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 연구, 19(3), 149-180.
- 김영화(2003). 「사교육의 가능성과 한계」, 『교육사회학연구』, 13(3), 85-108.
- 김은실(2004). 『사교육 1번지 대치동 엄마들의 입시전략』, 서울: 이지북.
- 김지경(2003). 「사교육비 지출의 지역별 비교」, 『KLIPS Research Brief』, 4, 1-11.
- 김현아(2002). 『강남지역 주택시장 분석』, 서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김홍주·한유경·김현철(1999). 「한국 학생의 연간 사교육비 지출 규모와 변동추세」, 『교육학연구』, 37(4), 307-328.
- 남재량·김지경·성재민·이상호·최효미(2005). 『제6차(2003)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류방란·이혜영(2002). 『초등학교 교사의 생활과 문화』.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서근원(2003). 『수업을 왜 하지?』, 서울: 우리교육.
-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2003). 『2003년 신입생 특성조사』. 서울: 저자.
- 성기선(2002). 「고등학교 평준화정책과 학력하향화 현상과의 관련성 분석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2(3), 121-131.
- 손경애(2004). 「EBS 수능강의」에 대한 정책 평가: 효과성, 대응성, 형평성을 중심으로」, 2004 추계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83-205.
- 신동균(2005). 『소득 분포의 양극화 추이』, 미발표 논문.
- 양정호(2002). 「School effects: New trends in the sociology of education」, 『교육사회학연구』, 12(1), 115-134.
- 양정호(2003). 「중학생의 과외참여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 30(2), 261-283.
- 양정호(2004a). 「공교육산업과 사교육산업의 발전방향」, 2004년 추계 한국산업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42-70.
- 양정호(2004b). 「평준화와 학업성취: 실증적 증거들?」, 『교육사회학연구』, 14(2), 151-174.

양정호(2005).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종단적 연구: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5(2), 121-145.

양정호·김경근(2003). 「학업성취에 대한 학교조직의 효과: TIMSS-R의 위계적 선형모형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3(2), 165-184.

오육환(2000). 『한국사회의 교육열: 기원과 심화』, 서울: 교육과학사.

우천식·이경영(2005). 「교육투자 기회 격차의 구조와 해소방안」, 인적자원 협력망 워크숍 발표자료.

윤종혁(2003.7/8). 「30년간 난무하는 경감대책들 속에서 더욱 튼튼해진 사교육」, 『교육개발』, 30(4), 29-33.

이성림(2002). 「가계의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불평등」, 『대학가정학회지』, 40(9), 143-159.

이성림(2005). 「사교육비 부담과 가계의 소비지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63-76.

이승신(2002).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경제적 복지」, 『대한가정학회지』, 40(7), 211-227.

이영(2004). 「가계특성에 따른 사교육비 분포」, 교육개혁포럼 월례 발표 논문.

이정환(2002). 「가족환경, 과외, 성적」, 『한국사회학』, 36(6), 195-213.

이종각(2003). 『교육열 올바르게 보기』. 서울: 원미사.

이주호·김선웅(2002). 「학교 정책과 과외의 경제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8(2), 1-51.

이혜영·류방탄·윤여각(2001). 『중등학교 교사의 생활과 문화』,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전우홍·양정호(2004). 「수능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연구」, 『한국교육』, 31(3), 157-184.

정진환(2004). 「일본 학원교육의 동향과 그 시사점」, 한국교육행정학회 소식지, 81, 1-5.

한준상(2005). 『국가과외』, 서울: 학지사.

동아일보(2005.8.9). 「소득 상위10%-하위10% 사교육비 지출 8배차」, A13면.

서울신문(2004.11.19). 「EBS 체감반영률 30%」, 1면.

조선일보(2003.10.23). 「사교육비 매년 조단위로 는다」, A1면.

한국교육개발원(2003.11.19). 「사교육비 실태 조사 결과 발표」, 한국교육개발원 보도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03.11.27). 「사교육비 경감방안」, 한국교육개발원 보도자료.

Baker, D.P., Akiba, M., LeTendre, G.K., Wiseman, A.W.(2001). Worldwide shadow education: Outside-school learning, institutional quality of schooling, and cross-national mathematics achievement.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23(1), 1-17.

Bray, M.(1999). *The shadow education system: Private tutoring and its implications for planners*. Paris: UNESCO.

Duclos, J.-Y. & Abdelkrim, A.(2005). *Poverty and equity: Measurement, policy and estimation with DAD*. Quebec, Canada: Universite Laval.

Duclos, J.-Y., Abdelkrim, A., & Fortin, C.(2004). *DAD: Distributive analysis user's manual*.

Quebec, Canada: Universite Laval.

Duclos, J.-Y., Esteban, J., & Ray, D.(2003). *Polarization: Concepts, measurement, estimation*. CIRPEE Working Paper 03-01, Universite Laval, Quebec, Canada.

Duclos, J.-Y., Esteban, J., & Ray, D.(2004). Polarization: Concepts, measurement, estimation. *Econometrica*, 72(6), 1737-1772.

Seth, M.J.(2002). *Education fever: Society, politics, and the pursuit of schooling in South Kore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Wolfson, M.C.(1994). When Inequalities Diverge. *American Economic Review* 84(2), 353-358.

Wolfson, M.C.(1997). *Divergent Inequalities: Theory and Empirical Results*. Research Paper Series, Analytical Studies Branch, No 66.